

40년 전, 그 때 그 길 따라 그리운 사람을 찾아서...

- 초창기 농업기술연수생 파견사업을 되돌아보면서 그 공과와 잊을 수 없는 일들 -



寒梅山房主人 白甫

(본회 정장섭 고문)

먼저 이 글을 읽으실 회우님들에게

우리 '농업기술회보' 2004년 2월호부터 "50년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하여 2005년 4월호까지 12회에 걸쳐 연재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고 말았다. 12회 연재의 총괄표를 지금 뒤져보니 200자 원고지 약 700매 분량이었다. 이 연재가 중단된 지 벌써 1년9개월이 지났다. 이 번호의 이 제목의 글은 연재 11회(2005년 2·3월 합병호)의 "제1차 연수생일본파견과 부설 농업기술연수원의 개원, 4대 결실운동의 제창, 시·도지부 유급상임간사의 임용과 제1회 시·도별 농업기술자대회 개최"와 연관이 되어있다. 독자들이 이해를 돕자면 연재 11회분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여기에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65년, 6·3사태로 역사에 기록된 한·일 회담 반대시위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격동의 소용돌이 끝에 한·일 국교가 트이게 된다. 이 역사의 격동기인 그해 5월에 국교가 없는 일본에 제1차 농업기술연수생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1차 파일연수생 파견은 우리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한·일 양국의 FAO의 주선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그 무렵 건국대학교에는 농과계열의 단과대학이 넷이 있었는데, 즉 축산대학, 농공대학과 지역사회개발대학, 농업협동조합대학(농협대학은 그 후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그것이다. 농협대학 설립 초대 학장이 최응상 선생이었고 FAO한국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최응상 학장이 FAO의 업무로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어 이사장이신 우리협회 유석창 총재에게 출국 인사를 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유 총재는 최 학장에게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연수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섭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최 학장이 일본의 FAO와 교섭을 하여 농업기술연수생 10명을 받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제1차로 일본에 농업기술연수생을 보내게 된 것이다. 연수생 선발은 우리협회에서는 이창욱(부산시지부), 김동준(강원도지부 부지부장), 강원호(제주도지부 부지부장), 세 사람이 선발되어 연수단에 참가하게 되었다. 농협대학에서 3명과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4명의 명단은 연재

11회에 이미 소개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거니와 모두 10명으로 제1차 농업기술연수단이 구성이 되어서 1965년 5월 30일에 장도에 올랐다. 그러니까 제1차 파일농업기술연수단의 파견은 우리협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님을 한 번 더 밝혀둔다.

한국의 농민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자부심으로

그 때 일본에 가서 보낸 연수생들의 편지와 뒤에 귀국보고에서 알려졌지만 말이 농업기술연수이지 일본의 농촌은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서 농가의 노동력봉사(?)나 다를 바 없었다. 패전으로 폐허가 된 일본은 5년 후인 1950년, 한국의 6·25 전쟁으로 재기의 발판과 동력을 얻어서 1964년의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반면 일본의 농촌에는 성장의 그늘에서 이농과 일손부족으로 격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농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우리 연수생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대조적으로 '춘궁기'와 '보릿고개'라는 낱말이 신문지상에 뉴스로 등장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다. 일본으로 건너간다는 사실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니 우리연수생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약간의 수당에도 너도나도 줄을 서서 무슨 명목으로든지 일본에 가기를 바라던 그런 시절이다. 우리 연수생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국위를 선양하는 외교관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잘 참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였다.

특히 우리 협회에서 선발되어 간 연수생이千葉에 있는 주식회사 미카도육종농장(이하 '미카도'라 약칭)에서 연수를 하게 되었다. 성실성과 근면성과

능통한 일본어와 지식에서 미카도의 농장장과 사장 이하 간부들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이다. 김동준 강원호 회우는 미카도에 우리 한국의 연수생을 받아들 수 없느냐고 교섭을 하게 되었다. 이 두 분과 같은 연수생이라면 이 교섭을 미카도회사로서도 어찌 마다 할 것인가. 연수생을 미카도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김동준, 강원호 두 회우의 보고는 그야말로 초창기 우리협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쾌거요, 낭보였다. 이때가 1965년 연말이 아닌가 하고 기억이 된다. 유석창 총재 이하 모든 임원들의 기쁨 또한 컸다. 우리협회가 독자적으로 연수생을 파견하게 되었고 갖 출범한 11개 시·도지부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한 사람씩의 연수생 선발권(?)을 시·도지부에 일임하였다.

여권발급에 천신만고, 세 차례의 연기 후에 장도에

이렇게 하여 선발된 11명의 연수생들은 미카도로 부터 초청장을 받고 여권신청을 하여 발급받는데 몇 달이 소요되었다. 첫 째의 난관은 농림부의 추천이고, 두 번째의 난관은 외무부의 여권을 발급받는 일, 세 번째는 당시 반도호텔(오늘의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던 일본대사관의 비자를 발급받는 일이었다. 여권발급과 비자발급 받아서 출발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가를 지금 회상해도 지긋지긋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 단적인 실례가 연수생들을 소집하여 출국을 앞두고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연수원에서 합숙,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4월 25일에 출발하려다 연기되었고, 5월 2일의 두 번째 출발이 또 연기되어 석 달 동안 출국의 짐을 꾸려서 세 차례나 서울을 오가던 끝에 드디어 7월 10일 08:00시 본

회 간부들과 사무처 임직원의 환송을 받으면서 재건호편으로 부산으로 가서 1박하고 다음 날인 7월 11일에 韓丸이라는 선편으로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연수단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김동준(강원삼척, 단장), 장재진(강원삼척, 총무), 우제국(경북경주, 부총무), 강신남(서울), 백낙현(경기), 박명순(충남), 박홍배(경남), 손찬점(전북), 노병용(전남), 김종대(부산), 문병영(제주), 충북의 이재문 회우는 선발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출국 못하여 모두 11명이었다.

우리 협회가 독자적으로 연수생을 파견한지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현지 연수처인 미카도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수생과 미카도의 양측 모두가 너무 지나친 기대가 맞부딪친 결과로 나는 판단하였다. 미카도에서는 빨리 와서 연수생을 데려가라고 재촉이 연거푸 왔다. 김동준 단장이 현지사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일시귀국을 하여 유 총재님에게 보고하였고 우리협회 기획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유석창 총재는 이 일을 수습하고 오라고 정 전무(필자)를 지명하였다.

파견되자마자 갈등과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나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일본여행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언어도 부자유스럽고 보다는 이 막중한 일을 수습할 자신도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나설 임원도 보내서 수습할 책임자도 없었다. 수습을 못하면 그 책임을 지고 협회를 떠나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필자는 일시 귀국 중이던 김동준 단장의 동행안내로 1966년 11월18일에 부산경유 선편으로 일본에 가서



▲ 사진 오른쪽부터 越部昌子여사, 玉生씨와 中村씨

12월13일까지 25일간의 긴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귀국할 때 경남출신의 박홍배연수생과 함께 귀국하였다. 왜 먼저 한 사람만 데리고 귀국한 연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다. 필자가 먼저 귀국하고 뒤이어 나머지 연수생 전원이 12월20일에 下關을 출발하여 이튿날인 21일에 부산경유, 재건호편으로 귀국 상경하였다. 주식회사 미카도육종농장의 船串武사장도 연수생 일행과 함께 내한하였다. 船串 사장은 필자가 미카도를 방문할 때 전달한 유석창총재의 친서에 의한 답례방한이었다. 제2차 연수단은 연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겨우 5개월 10일 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일본이 세계에 자랑한 고속철도 新幹線이 1966년 당시 東京 ↔ 新大阪만 달리고 있던 때라 김동준 단장과 필자는 아침 일찍 下關에서 재래선으로 新大阪에서 新幹線으로 갈아타

고 하루 종일 달려서 東京에 도착하니 어두운 밤이었다. 차창에 펼쳐지는 일본의 산야와 풍경은 한마디로 ‘별천지’ 처럼 내 망막에 비춰지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로 다시 미카도의 소재지인 千葉로 가서 재일교포사회의 지도자의 한 분이신 정덕화선생의 배려로 특급호텔인 京成호텔에서 일본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난생처음 어리어리한 호텔에서 일본에서의 첫 밤을 자고나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물을 내릴 줄 몰라서 찼찼매다 옆방의 김동준 단장의 도움을 받은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호가 같은 기연으로 수습에 실마리 찾고

사랑도 첫 사랑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더니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양복 한 벌을 맞춰 입을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고 여비는 유 총재님의 금일봉과 기획위원들이 추렴하여 마련한 얼마의 돈이 전부였다. 이 돈도 은행에서는 환전을 해주지 않을 만큼 외화가 궁핍한 시절이라 암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숨겨서 간 일, 명동의 동방문화회관에 사무실이 있던 주석균 선생에게 출국인사를 갔더니 “정 전무! 일본에 가거든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농업협동조합을 꼭 견학하고 오라”고 격려와 당부를 하시면서 내가 놀랄 만큼의 큰 액수의 여비를 주신 일(이 당부의 말씀을 명심하고 나가노현의 芹田농협을 견학하였다), 출국할 때 유 총재님과 기획위원들께서 장도를 격려하여 외교구락부에서 환송연을 베풀어주시는 일, 나의 대학동창들의 계모임인 백령회에서 푸짐

한 환송축하모임 등등. 일본여행이 부러움의 대상이던 그런 시절이었다.

도착하자 말자 나의 맞상대는 미카도의 越部平八郎 당시 전무였다. 당장 담판을 하자는 제의를 미뤄두고 하루 종일 먼저 우리 연수생들과 개별면담을 하여 많은 정보와 갈등의 원인을 대략 파악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와 민족적인 감정을 먼저 이해시켜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하여 생각한 끝에 일본에서도 문필가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소운(金素雲) 선생의 저서로서 베스트 셀러였던 세 권의 책(「木槿通信」, 「恩讐 30年」, 「亞細亞の四等船室」)을 일본현지 서점에서 구입을 하였다. 이 책을 일본에 가기 전에 나도 감명 깊게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솔직하게 잘 표현된 내용이 담겨 있다.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권의 책을 越部 전무에게 선물하면서 내가 만년필로 서명을 하는데 건방지게도 「大韓民國 靑圃野人 鄭長燮 謹呈」이라고 썼다. 서명을 지켜보던 越部 전무가 “...정 전무의 아호가 ‘청포(靑圃)’냐...”고 물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새삼 악수를 청하면서 “나도 호가 청포”라는 것이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 그리고 기연이 어디 또 있으랴. 이 기연이 계기가 되어 골치 아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타결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작별을 며칠 앞두고 東京의 중심가인 銀座의 큰 요리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대화중에 서로가 ‘불자’임을 알고 더 친근감이 가게 되었다. 필자는 ‘불자’라고 자칭하기 부끄러운 돌팔이 같은 신자이지만 越部 전무는 그 술자리에서 정좌를 하더니 반야심경을 낭랑



한 목소리로 독경하는 데는 놀라고 말았다. 越部 전무는 작별을 앞두고 나에게 선물이 무엇이 좋냐고 묻기에 나는 방금 독경한 반야심경을 친필로 사경해 주시면 최고의 선물로 간직하겠다고 답하였다. 몇 일후 작별인사 때 받은 이 선물은 지금도 우리 집 가보로 고이 간직하고 있다.

의외의 연수처 개척, 비밀 교섭은 폭로되고

답판 결과 미카도에서 계속 연수생을 받아주되 인원을 3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연수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었다. 이 무렵 전북출신의 손찬점 연수생이 날더러 함께 群馬縣의 前橋에 있는 가네꼬종묘주식회사로 가자고 한다. 가네꼬에서도 우리 연수생을 받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가네꼬는 미카도보다도 더 큰 종묘회사였다. 이 회사가 경영하는 白雲莊이라는 호텔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金子才十郎사장과 아우인 金子昌一 전무와 연수생파견문제를 협의하는데 한마디로 '미카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가 결론이다. 각 시·도별로 11명의 연수생을 1년 기한으로 받아주기로 타결이 되었다. 나로서는 의외의 큰 성과였다. 그 이후 가네꼬의 주선으로 미야마브로일러(육계), 高崎햄(육가공)에도 연수생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이 있는 얼마 후 미카도의 고시베전무가 나를 원예시험장으로 안내하여 주었을 때였다. 越部전무가 날더러 조심스럽게 "정전무! 群馬의 가네꼬에 갔다 왔지요?"하고 묻는다. 나는 도둑질하다 들킨 느낌이었다. 대답을 못하고 당황하는 내 표정을 읽은 越部 전

무는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면서 "정 전무! 놀랄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요, 한 사람의 연수생이라도 더 이곳에 보내려는 정 전무의 노력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였다. 越部 전무는 이런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였다. 어찌 이 뿐이라! 1972년에 미카도의 위탁채종 3만불 어치를 맡아서 원종만 날리고 몽땅 실패로 돌아갔을 때도 물에 씻은 듯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

연수처, 연수부문과 인원은 확대되고

우리협회의 일본파견 농업기술연수사업은 그 후 위에서 언급한 회사 말고도 第一원예주식회사(화훼), 주식회사 愛鷄園(채란양계), 주식회사 마루세(육계와 육계가공), 群類축산(양돈), 日本農業實踐學園(농업후계자, 종합) 등등 한 해에 40여명을 보낸 일도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연수생들의 처우도 일본의 재단법인 해외연수협회가 창구가 되어 획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었다. 왕복항공료와 연수비, 체제비의 충분한 소요경비의 75%를 일본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25%는 연수생을 받아들인 회사의 부담이어서 일본에서 대졸 초임급의 대우로 귀국할 때 목돈을 저축하여 오는 연수생들도 있었다. 우리 연수생들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와서 대학의 강단에 서거나 연구소의 중견간부로 활약한 인사도 3명이나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얻어서 지금도 일본에서 수의사로 활동하는 인사도 있다. 국내에 돌아와서 농협 등 농민단체의 조합장과 간부 등등 나름대로 활약한 인사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활발하던 연수생 파견사업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연수희망자들이 줄어들다가 지금은 보낸다 해도 갈 희망자가 없을 만큼 세상이 바뀌었다. 연수인원, 연수부문, 20여년의 지속성 등 우리협회의 40년간 쌓아 온 여러 업적 중에서 파일연수사업은 성과라면 큰 성과로 자부한다. 늘 화제에 오르지만 파일연수출신들이 귀국 후에는 협회사업에 성의와 열의가 시들하다는 비판도 있다. 굳이 공과를 따진다면 과보다는 공이 많았다고 스스로 결과를 평가한다.

40년 쌓아 온 우정을 영원히 이어가길

지난 2006년 초가을에 몇몇 일본의 친구가 서로 사귀 40년을 기억하고 일본으로 오라는 국제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망가진 처지인 것도 알고 일본의 어떤 공항이건 도착하는 일시만 알려주면 마중할 테니 걱정 말고 오라는 고마운 권유도 있었다. 40년을 쌓아 온 우정을 이대로 단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생각도 들었고 나이도 이렇게 들고 보니 내 생의 마지막 일본여행을 하고 싶던 차에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의 사무국장 김동한 박사가 일본어가 통하는 연구원과 나와 함께 가서 취재와 자료 수집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12월 15일에 비행기편으로 靑森로 가서 기차로 일본열도를 종단하여 22일에 九州의 博多에서 선편으로 부산을 경유하여 귀경하였다. 7박 8일 동안 되도록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되도록 많은 그리운 사람을 찾아서 뽀박질여행을 하였다. 여행 중의 취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

에 등장하는 한·일 모두의 인물이 너무나 그리워서 불원천리하고 찾아갔지만 거의 모든 인사의 모습을 뵈 수가 없었다. 40년이란 세월의 풍화가 이렇게도 가혹한가. 아! 인생무상이여! 너무나 그리워서 유족들의 안내로 묘소를 찾으니 인생의 허무만이 내 목을 메이게 하는구나.

12월 16일 일요일 千葉역 인근의 스카이라운지의 식당에서 越部 회장의 영부인 昌子여사와 昌子 영부인의 친정 남동생이며, 평생을 미카도에서 봉직하다 은퇴한 中村淳씨와 中村씨의 매부이며 越部昌子 영부인의 제부인 玉生溫씨가 우리 일행을 환대하여 점심을 대접하여 주었다. 越部 회장의 명복을 빌면서 건배를 하였다.

출국과 입국을 하면서 비자도 필요 없고 까다로운 입국심사도 세관검사도 없다. 41년 전에는 감히 만져 볼 수 없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암시장에서 달러를 바꿀 필요도 없어졌다. 특급호텔은 아니지만 잠자리나 먹거리의 궁상을 떨 필요도 없이 어디를 가나 카드를 내밀고 싸인 만으로 통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목에 힘을 주면서 일본의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저러나 뉴스를 들으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2006년 통계로 8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나라별로는 1위가 한국으로 23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고 한다. 게다가 2006년의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최고치로 250억불을 넘었다고 보도를 한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일본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글의 맺음말이다.(필자의 본명은 '정 장섭' 이고 '靑圃' 라는 호는 늙어서 '白甫' 로 자칭하고 있음)